

[夏の幽霊]

w. 레릭

배포일 : 2022. 2. 14

최종 수정일 : 2022. 8. 11

☐ 알림

- 문서 하단에 추천 BGM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진상과 시나리오 본문이 이어집니다.

플레이 예정이신 분들은 열람하지 말아주세요.

진상

PC는 우연히 이스족이 시공을 이동하기 위해 만들었던 비틀림에 휘말려 시간의 틈에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PC는 시나리오의 배경이 되는 50년 전의 <나나모리 클리닉>의 VIP병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병실의 주인인 KPC를 제외하면 아무도 PC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의 틈 속에서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서, 이 안에서 PC는 이스족이 이상을 알아차리고 이 틈을 닫을 때까지 8월을 꼬박 보내게 됩니다.

KPC 정보

KPC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나모리 클리닉>은 암센터가 존재하는 일본의 한 병원으로, KPC는 이미 몇 년 동안 항암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봄부터는 치료를 포기하고, 단순한 요양을 위해 병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른 설정은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되지만, KPC는 **반드시** 이 여름이 끝날 때 죽게 됩니다.

PC 정보

PC는 어쩌다 이스족이 연 시공의 비틀림 속에 끼어버린 가엾은 희생자입니다. 안에서의 한 달은 밖에서는 몇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PC는 이 시간 속에 고정된 것과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매개체가 된 KPC를 제외하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무엇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령과도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PC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 속의 PC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KP노트는 이 색으로 표시합니다.

[あのね、レイ。]

찌는 듯한 더위, 타들어 가는 목, 녹아내릴 것 같은 푸른 하늘... 그늘 안에 서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바람조차 무거운 여름. 구름이 바닥에 떨어진 아이스크림 같이 몽글거리는 혼하디 혼한 여름. 그리고 당신이 유령이 되어버린 여름. 오늘은 8월 17일, 당신이 이 병실에 갇힌 지 2주째 되는 날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상념 너머로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KPC의 목소리가요. 여름철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같은... 어찌다 죽었는지, 왜 여길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나는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병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갑갑한 상황. 그때 저기요, 하고 말을 걸어온 KPC와 말을 튼 것도 벌써 2주째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겁내던 KPC도 이제는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면 종종 당신에게 말을 붙여오게 되었죠.

PC, 혹은 KPC의 성향에 따라 여전히 데면데면한 사이인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한 걸 물어보려는 건 아니지? 여긴 어디냐던가...”

(이때 RP를 통해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병원의 이름? - 나나모리 클리닉이야. 암센터가 있는 곳이지.

너는 누군지? - 나는 당연히 KPC다. 이 병실에 입원해 있다.

왜 입원했는지? - 죽어가고 있으니까. 혹은 치료를 위해서.)

대화를 하던 도중, KPC는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침 소리조차도 너무 연약해 기침이라기보단 낙엽이 구르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곧 죽을 사람처럼요. 이곳, 나나모리 클리닉은 듣기로는 일본 제일의 암병원이라고 KPC가 말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조차도 KPC의 병을 고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 죽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죠. 약된 몸으로 자신의 기침 소리에도 흔들흔들, 하고 풍경처럼 흔들리는 몸을 당신은 잡아줄 수조차 없습니다.

“あのね、レイ。”

저기, 레이.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바람결에 흩날리는 것 같습니다. 그 호칭에 새삼 KPC와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의 당신은 정말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갑자기 어딘지도 모를 곳에 툭 떨어졌던 겁니다. 심지어는 문조차 열 수 없었던 당신은 안에서 회진을 돌던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지만, 간호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기까지 했죠.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섬찟합니다. [Sanc 0/1]

세상에 홀로 툭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당신이 자기도 모르게 병실 안을 서성이며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한쪽 구석을 막아두던 커튼이 획 젖히며 누군가 당신과 눈을 마주한 채 말했습니다.

“대체 누군데, 남의 병실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관찰력]판정.

성공 - 그런데, 묘하게 얼굴이 낯이 익습니다. 아니, 얼굴보다는 목소리나 분위기라고 할까요. 익히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실패 - 데자뷔일까요? 묘하게 낯익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당신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유령인 거냐며 안 그래도 창백한 얼굴이 정말 백지장 처럼 질린 KPC는 커튼을 도로 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봐야 당신은 이 병실에서 나갈 수 없었고, 그건 KPC역시 같았죠. 시시때때로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걸기를 반복하던지 사흘째. 결국 KPC는 혼자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심심한 걸 견디지 못했는지 다시 말을 걸어 왔습니다.

“저기, 이름은 뭐야?”

하지만 당신은 그 질문에 대답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걸요. 당신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지금이 여름이라는 것뿐입니다.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고 위태로운 여름... 당신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KPC는 웃는 얼굴로 말합니다.

“그래도 이름은 필요할 거 아냐? 너를, 레이 레이 라고 부를게. 유령의 레이!”

거기에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어쨌든, 그날부터 당신의 이름은 레이, 유령이 되었습니다. 이름이란 특별한 것이라, 당신이 KPC를 애뜻하게 여기게 된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물며 만날 수 있는 사람도 KPC뿐이라면 더더욱이요.

그해 여름, 묘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그해 여름에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병원의 창문을 빼곡히 덮어버린 빗방울과 비냄새가 나, 하고 중얼거리던 목소리. 당신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여름이었지만 KPC역시도 그랬습니다. 몸이 약해 죽을 날만을 헤아리는 사람이 비를 맞으며 뛰어다니거나, 감기가 들지도 모르는데 창문을 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순간 속에 갇혀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당신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딘지 애뜻한 느낌이 드는 KPC에게 여름을 가져다주고 싶다고요.

[君わさ、]

그래요,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든, 남몰래 그애를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이든, 단순한 연민이었든 간에. 혹은 정체모를 애뜻함 때문에... 당신은 그애에게 여름을 가져다주고 싶었습니다. 빗물의 차가움, 습한 바람, 귀를 찢는 매미소리, 파릇하게 피어나는 나뭇잎의 생명력과 쾌청한 하늘을 수놓는 하얀 구름. 겁 속의 얼음이 녹아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유난히 짙은 색채, 축제의 북적거림, 밤하늘에 퍼지는 불꽃놀이의 반짝임... 그야말로 여름의 모든 것들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에게 허락된 것은 곁에서 여름을 속삭이는 것뿐이니깐요. KPC역시 그 사실을 잘 알아서인지 당신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KPC도 당신이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창밖을 바라보던 옆모습에서는 묵직한 소원이 전해져올 따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물음은 상당히 낯설게 들려왔습니다.

“君わさ、”

너는 말이야, 여름이 뭔지 알아? 더운 여름에도 서늘한 병실 안에 누워 블라인드가 쳐진 창문을 바라보며 말하는 얼굴이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그때, 시야 한편으로 KPC의 [다이어리]가 보입니다. 평소에는 꼭꼭 숨겨두더니... 이 페이지만 슬쩍 봐볼까요?

[핸드아웃 - [다이어리]

의사 선생님 말이 사실일까? 나, 정말 얼마 못 사는걸까?

죽기 싫어. 눈이 오는 게 보고 싶은데. 단풍도, 낙엽도, 전부 보고 싶은데. 여름조차 보지 못하는 몸 같은 거, 차라리 자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죽어버리면 좋겠어. 그러면 조금은 덜 슬프지 않을까...

날짜는 몇달 전, 봄입니다. 그렇다면 KPC의 목숨은 앞으로 얼마나 남은 걸까요. 먹먹한 기분에 목이 막힙니다. [Sanc 1/1d3]

그런데, 그런 당신을 KPC가 보고 있던 모양입니다. 손을 뻗어 다이어리를 늘 넣어두던 서랍 안에 넣어두고는 침대에 기대 앉은 KPC는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처럼 말하네요.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었어? 왜 이렇게 놀라.”

RP를 진행하며 아마 올해 여름을 넘길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여름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전달해주세요. 몇 시간이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보니, KPC는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KPC는 책을 한 권 보여주며 말합니다. 제목이.. <유령에 대한 모든 것~오컬트의 신비~> 라는 제목이네요. ...뭐 이런 걸 가져온 걸까요? 어쨌든, KPC는 책의 한 부분을 짚어 보여줍니다..

[핸드아웃 - [죽은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는 법]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건 일종의 강령술에 가깝지만, 신체가 아닌 정신을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다른 것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찾아온 영혼이 나에게 호의적일 경우 더더욱 효과적이다. (중략) 이 주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각몽 상태에서 부르려고 하는 영혼의 이름을 외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사실 이 주문은 영혼보다는 사념체를 끌어오는 주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오류로 떠도는 PC가 KPC의 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너를 부르면 내 꿈속으로 와줄래?”

신빙성있는 주술은 아닐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KPC는 오늘부터 연습을 해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자각몽을 꾸는 법에 대한 책을 읽겠다며, 당신이 심심하지 않도록 TV를 틀어준 KPC는 금세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틀어준 곳에서 토론 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KPC는 이미 책에 집중하고 있어 불러도 들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잠깐 들어보자고요.

◇[듣기] 판정

성공 : 패널 중 한 명이 이번 쇼와 45년 3월에 있었던 한 테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음, 흥분한 패널을 사회자가 저지하네요.

실패 : 패널 중 한 명이 이번 봄에 있었던 한 테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분한 패널을 곧 사회자가 제지하네요.

잔뜩 화가 난 패널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인신공격을 해, 상대 패널의 먹살을 잡는 것과 동시에 급하게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용은 별로 특별할 게 없었지만, 그래도 보다보니 시간이 꽤 지났네요.

돌아보면.. KPC는 어느새 잠들어 있습니다. 자는 모습이 불편해 보이는데... 하지만, 당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회전을 도는 의사가 오늘은 조금만 더 일찍 오기만을 빌 수밖에요.

[夢で会おう。]

자각몽을 연습한다고 KPC가 말한지 일주일째. 몸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KPC가 호흡기를 단지도 벌써 며칠이나 지났습니다. 마지막 회진에서 의사는 이제는 손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신약이란 신약은 다 써봤고, 고통스러운 치료도 감수했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듣던 KPC의 표정이 이상하게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KPC의 말수가 줄어든 것도 이제야 조금 적응이 되려고 해요. 잠든 얼굴이 야위어 보입니다. 원래도 입이 짧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죽 한 그릇 비우는 것도 힘들어하던 것 때문일까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잠들기 시작한 것도 그때문일까요.

잠을 자지 못하는 당신이 KPC의 곁을 지키며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던 중. 당신의 귀를 무언가 툭툭,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KPC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레이, 레이.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요. 잠에서 깬 걸까요? 하지만 KPC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대체 어디서 들리는 걸까요.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을 경우)

당신이 답하지 않자, KPC는 미미하게 미간을 찌푸리는 것 같더니, 이내 꿈, 하고 몸을 뒤척거립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네요. 대체 뭐였던 걸까요?

스크립트 진행 후, 바로 다음날로 넘어갑니다.

(목소리에 대답할 경우)

당신이 그 목소리에 대답하자, 갑자기 졸음이 몰려옵니다. ...졸음이 몰려온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유령인걸요. 유령이 잠을 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하지만 이 졸음은 진짜입니다.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의식이 어딘가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느낌 말이에요. 당신이 결국 눈을 감으면...

눈을 느리게 깜빡였을 뿐인데, 본능적으로 지금 이곳은 꿈속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KPC가 당신의 뺨을 손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닿을 수 없는 우리가요. KPC가 말해줬던 그 수상한 주술이 진짜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은 불안정하다며, KPC는 당신의 곁에 앉아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평원이 펼쳐진 풍경은 언젠가 KPC가 보던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곳 같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이 느껴져요. 당신은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KPC도 아픈 곳 없이 건강한 몸이 가져다주는 활기에 한결 밝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볼까?”

확실히, 이 방법이라면 KPC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더 많은 풍경을 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쨌면, 그래요. 그 야속한 여름 속으로 슬쩍 끼어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만을 빼놓은 여름에게서 말이예요.

RP구간입니다. 주술을 통해 불러왔다,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다 등...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KPC는 이제 슬슬 일어날 때가 됐다며 눈을 감습니다. 꿈에서 깨기 위해 잠에 들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어쨌지, 가슴 한 구석이 벅차옵니다.

다음날,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깨어난 KPC는 당신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을 경우)

왜 불렀는데 오지 않았냐고 화를 내네요. 그렇다면.. 어제 그 목소리가 정말로, KPC의 목소리였던 걸까요? 그 주술이 진짜로 통하는 모양입니다.

(목소리에 대답했을 경우)

꿈이 아니었지? 하고 묻는 목소리가 잔뜩 들떠있네요.

오늘은, 오늘도 꼭 성공하겠다며 저번에 보던 자각몽에 대한 책을 또 손에 쥔 KPC는 당신이 신경쓰이는지, 책의 내용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RP를 통해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끼리도 등급을 나눈다. 그런데 이때 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너도 내 꿈에 들어온 것이니 네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중점적으로 전달해주세요.

KPC의 말이 맞다면 당신의 무의식을 떠올려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왜 죽었는지... 자의식이라는 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만약 그런 걸 알 수만 있다면.. 당신이 왜 여기에 갇혔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夢で会おう。”

꿈에서 만나자. KPC의 나직한 목소리에 두근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밤이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KPC의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고, 당신 혼자만이 깨어있는 시간을 지나 어슴푸레하게 새벽이 밝아올 때. 또다시 귓가를 건드리는 목소리... 아, 당신은 대답함과 동시에 꿈속에 빠졌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텅 빈, 흰색 공간이 무한히 펼쳐진 곳에 텅그러니 놓인 테이블과 의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KPC의 모습도요.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 뭐든, 생각나는 거 있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기억나는 건 고작해야 여름의 풍경이 어땠는지, 그 더위에 아이스크림이 간절했던 순간도 있었는지 따위의 단편적인 것뿐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는 풍경을 바라보던 KPC는 괜찮다고 웃습니다. TV화면 너머에만 존재하는 바다와 들판, 하늘과 극지의 오로라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닿을 수 없는 여름의 온도를 보여주면서...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며칠이나요. 꿈속에서 한없는 여름을, 가을을, 겨울을, 봄을 보았습니다. 해바라기를, 코스모스를, 동백을, 벚꽃을 보았어요. KPC는 멀고 먼 계절들을 전부 가져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기억하느냐고. 자신이 겪은 계절은 이러했다고요. 이제 닿을 수 없어진 계절들이 어떻게 아팠고, 즐거웠고, 기뻐는지. 매일 잠들 때마다 다음날 깨어나지 못할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픈 몸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꿈에서 만나자,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이 가없는 꿈속에 갇혀 서로를 의존하며 눈을 가리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쇠약해진 몸도, 닿을 수 없는 손도 존재하지 않는 환상은 달콤한걸요. 또렷한 목소리와 푹푹한 꽃향기, 여름의 아지랑이, 후끈한 공기가 폐를 가득 메우는 꿈속이 낙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는 오늘도 꿈을 꿔요. 여름의 쾌청한 하늘, 귀를 찌르는 매미 소리를 등지고 선 KPC. KPC는 당신에게 손을 뻗으며 말합니다.

“우리, 데이트하자.”

KPC와 PC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가주세요! 거의 마지막 RP구간인 만큼, 하루가 아니라 꿈속에서 며칠, 몇주, 아예 몇 년을 보내도 좋습니다.

꿈 속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야기했던 곳을 가거나, 여름에 맞게 축제를 가거나, 아니면 KPC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를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0년 전의 풍경이라는 점을 고려해주세요!

(ex. 당신은 KPC에게 이끌려 함께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웬지.. 낯선 것 같습니다. 어딘지 고즈넉한 옛 시대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착각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KPC와 함께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걷는 걸음이 경쾌하네요. 이렇게 활발한 사람인줄 몰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이었을 지도요.)

석양이 질때 쯤에 꿈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 스크립트도 적당히 상황에 맞춰 개변해주세요.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시는 없을, 우리가 아닌 그 누구도 알지 못할, 어느 계절을요. 내디뎠던 걸음 하나조차 소중했고, 마시는 숨 한 방울조차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이렇게 맘 한구석이 불안한 걸까요? KPC의 목소리가 멀어집니다. 이제 꿈에서 깬 시간이거든요. 조금만 더 오래 있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곧 새로운 여름의 해가 밝을테니까요.

아, 당신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이런 끝없는 불안함이 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를요.

[幸せだった。]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KPC의 여름이요. 그래요, 당신은 언젠가 봤던 다이어리의 내용을 떠올립니다. 낙엽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눈이 오는 것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름을 넘기지 못할거라는 목소리가 귓가를 울리는 건 왜일까요. 한 순간도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그야말로, 태양에 눈이 멀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눈에 띄게 쇠약해진 KPC는 아주 일찍 잠들고, 아주 늦게 깨어나 희미한 숨소리를 내며 웃습니다. 호흡기 안을 메운 입김에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숨에서 낙엽 냄새가 난다니, 당신은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데 어쩐지 그 바스락거림을 생생히 느낍니다. 어째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KPC는, 당신과는 다르게 살아있는데. ...때때로 사람은 아주 날카로운, 예지와도 같은 직감을 느끼고야 합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KPC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금방이라도 KPC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요. 우리를 나누는 선은 여전한데 말이에요. 여전히 당신은 KPC를 잡을 수 없고, 침대 위에 기대 앉으려 몸을 일으키는 몸을 받쳐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잘못 생각한 거라고 아무리 맘을 달래봐도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따끔거립니다. 오히려 KPC가 당신을 다독입니다. 그 손길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 죽어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네가 있잖아, 레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

유령인 당신이 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KPC의 말은 진심일까요? 아니, 애초에 정말로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이 한없는 여름을 벗어나, 병원 밖으로 걸어나가 함께 단풍을 볼 수 있을까요. 만일 그때도 우리가 이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어찌죠? 혹은, 나갈 수 없는 당신을 두고 홀로 걸어나간 KPC가 당신을 잊는다면? 그렇게 이곳에 고인 채로 당신 혼자만 남아 하염없는 여름을 되새기게 된다면? ...두려움이 차오릅니다. [Sanc 0/1]

그런 당신의 맘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걸까요. KPC는 당신에게 마른 손을 뻗어옵니다.

“오늘 밤에도, 내 꿈에 와줘. 오늘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당신과 닿을 수 없는 그 손이 우리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쩐지 그 손에서는 여름 장마에 젖은 낙엽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밤을 기다립니다. 하염없는 여름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얇은 호흡을 들으면서, 그 호흡이 도중에 멈추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고, 여름이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요. 이제 당신에게 여름은 어떤 계절인가요? 찌는 듯한 더위, 타들어 가는 목, 녹아내릴 것 같은 푸른 하늘... 그늘 안에 서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바람조차 무거운 여름입니다. 구름이 바닥에 떨어진 아이스크림 같이 몽글거리는 혼한디 혼한... 그 애가 사라질, 탐욕스러운 여름.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던 빛이 사그라들고,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KPC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당신도 그 곁에 함께 누워 잠들기로 했습니다. 귤가를 툭툭 두드릴, 그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당신도 모르게 응, 하고 대답하면 눈꺼풀 안에서부터 천천히 열릴 꿈결을 기다려요.

(이 스크립트는 KPC와 PC에 맞게 개변해주세요.)

다음 순간, 당신은 바다 위에 서있습니다. 물살이 어지러운 바다, 금방이라도 집어삼켜질 것 같은 바다. 그 위에서 당신은 물거품을 밟고 서있는 KPC를 보았습니다. 야원 뺨이 아니라, 마른 손이 아니라, 호흡기를 매단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발긋하게 물든 뺨이 애뜻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고 서있었습니다.

“안녕, 레이. 여기 어때? 예전에 TV에서 봤던 곳인데.”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풍경이라서 그런 걸까요? 왜인지,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갑니다. [Sanc 1/1d2]

하지만 그 두려움은 전부 KPC의 손을 잡으면 물거품처럼 사그라듭니다. (이성 1d2회복)

그래요, 물거품처럼... KPC는 조용히 당신과 손을 잡고 서서 바다 위에서 해가 지고, 별이 뜨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진 풍경 사이로 빛을 내는 해파리가 일렁거립니다. 옆에 서있는 KPC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때, 그애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있잖아. 나,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물이 변진 수채화처럼 아득한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또박또박 들립니다. 당신은 이 꿈이 끝날 때가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우리, 만날 수 있겠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지도 모르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울고 있는 옆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는 것을 깨달아버렸기 때문에.

끝없이 떨어지는 눈물을 바라보며,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0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봄에서 겨울까지, 당신을 이루고 있는 건 전부 KPC라는 것어요. 이대로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만에 하나, 그애가 영영 사라진다면 당신은 대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빠듯한 그리움에 숨이 막힙니다. 아, 이 여름이 끝나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 영영 이 속에 갇혀버린대도 괜찮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결국 꿈은 꿈이고, 우리는 모두 깨어나야만 하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문득 KPC에게 지금 당장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느껴요. KPC역시 입을 벌립니다.

[듣기] 혹은 [정신력]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 너를 만나러 갈게. 분명 KPC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만나러 간다고요, 그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믿게 해줘요. 누군가에게 애원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만 도대체 누구에게 빌어야 할까요?

그 사이, KPC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부식되듯이 우리는 꿈에서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夏の終わり]

당신은 눈을 뜹니다.

폐를 채우는 공기가 무겁습니다. 먼지와 햇살, 감은 눈 위로 내리쬐는 빗줄기가 잠을 깨웁니다. 왜일까요, 눈이 부실리는 없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눈이 부신 걸까요? 가물거리는 눈을 뜨면, 당신이 있는 곳은 사람이 없어 한산한 열차 안이에요. 덜컹거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퍼뜩, 정신을 일깨웁니다. 여기가 어디죠? KPC는 어디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병원에서 나온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사뭇 어색하면서도 기묘하게 낯이 익습니다.

그럴 법도 해요, 여긴 당신이 늘 지하철을 타고 오가던 길이니깐요. 때마침 있는줄도 몰랐던 핸드폰이 손 안에서 울립니다. 배터리가 아슬하네요. 당신에게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묻는 친구의 메일입니다. 여전히 얼떨떨한 기분이 가지지 않아 지하철이라는 문자를 보내면 약속에 늦었다며, 얼른 오라는 답장이 돌아옵니다. 그제야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죠.

그나저나, 방금 무슨 꿈을 꿔던 것 같은데... 누군가와 약속을 했었던가요? 닿을 수 없는 손이 야속했다거나, 여름이 끝나지 않길 빌었다거나...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애뜻한 무언가 말이에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잊고 싶지 않았는데 벌써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꿈은 꿈일뿐이니깐요. 그저 어딘지 슬픈 감각만이 남아있는...

여름이 끝나는 날이었습시다.

KPC, 로스트.

PC, 생환.

보상, 누군가에 대한 흐릿한 기억, 이성 1d3 회복, [오컬트]기능치 +5

[추천 BGM]

あのね、レイ。

[Serenno - 인디고 왈츠](#)

君わさ、

[yutaka hirasaka - eau](#)

夢で会おう。

[Madoka Ogitani - Blue bell no kane](#)

[Honoka Sakai - Chou à la Crème](#)

幸せだった。

[316 - 말라버린 꽃이 다시 피지 않듯이](#)

[316 - 밤삼킨별](#)

夏の終わり

[Serenno - 인디고 왈츠](#)